

부모의 정서사회화와 유아의 정서성 발달의 관계

The Relation of Parents' Emotion Socialization to the Development of Emotion in Their Young Children

이강이(Kang Yi Lee)¹⁾
최인숙(In Suk Choi)²⁾
성미영(Miyoung Sung)³⁾

ABSTRACT

The relation of parents' emotion socialization to emotionality in their 5-year-old children was studied in 106 mothers and 105 fathers. They reported on their own family-related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on their children's negative emotions by questionnaires; mothers rated children on both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ity. Results showed that mothers expressed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more frequently, and mothers showed more distress, expressive encouragement, and problem-focused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than fathers.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was related to children's emotionality, whereas only fathers'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was related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Mothers' distress and punitive reactions were associated with children's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ity. Mothers' problem-focused and emotion-focused and fathers' problem-focused reactions were associated with children's positive emotionality.

Key Words : 정서사회화(emotion socialization), 정서성(emotionality), 정서표현성(emotional expressiveness).

I. 서 론

아동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해석하고 정서적 표현행동을 결정하며, 특정한 상황에서 적절한 정서표현을 학습하게 되며, 점차 다양한 정서상태가 표현되거나 표현

¹⁾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기금조교수 겸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²⁾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³⁾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In Suk Choi,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an 56-1 Sillim 9dong, Kwanak-gu, Seoul 151-742, Korea
E-mail : aneschoi@gmail.com

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사회적 학습이 가능하다(Masters & Carlson, 1990). 정서를 사건의 의미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조절하며 환경에 반응하는 행동이라고 보는 관점이 제기되면서, 아동이 특정한 양식의 정서적 표현을 받아들이고 이를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학습하는 정서사회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서와 관련된 능력은 사회적 능력 발달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정서사회화에 대한 이해는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Eisenberg & Fabes, 1994; Saarni, 1990).

정서능력의 발달과 관련하여, Denham(1998)은 부모를 비롯한 주요 사회화 담당자들이 아동에게 자신들의 정서를 보여주거나, 아동의 정서에 반응을 보이거나, 정서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 등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동들에게 문화로부터 수용할만한 정서능력을 형성하게 한다(신양재, 2004)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은 부모가 가족 안에서 다른 가족구성원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모 자신의 정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관찰하면서 어떤 정서를 어느 정도 표현하는 것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파악한다(Denham, Zoller, & Couchoud, 1994; 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또한 아동은 부모가 자신의 정서에 대해 보이는 직접적인 반응을 통해서도 특정한 정서 표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학습한다(Dunn, Brown, & Beardsall, 1991; Saarni, 1990). 이처럼 부모 또는 가족원이 아동의 정서이해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져 왔다(이혜련·최보가, 2002; Cassidy, Parke, Butkoysky, & Braungrat, 1992; Garner, Robertson, & Smith, 1997; Gottman, Katz, & Hooven, 1996; Nixon & Watson, 2001). 부모가

자신의 정서표현을 통해서 아동에게 다양한 정서에 대한 모델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정서관련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에게 정서에 대한 간접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부모와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부모의 영향이 큰 유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정서사회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동의 정서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 중 상당수가 정서능력을 사회적 유능성의 일부로 보고 이러한 정서능력과 또래 유능성과의 관련성을 다루면서, 부모의 정서사회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부모가 가정에서 보이는 정서표현성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통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서사회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연구들이 일반적인 정서능력이나 정서표현, 정서이해 등을 중심으로 아동의 정서발달에 접근하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동의 정서발달을 아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정서 상태에 해당하는 정서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서성은 기질에 관한 최근의 모든 개념화 작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발달의 기본적 측면이다(Goldsmith & Campos, 1982). 연구자들이 기질을 구성하는 요소들 전체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만 이러한 정의들에서 정서성의 중요성은 일관되게 나타난다(Propper & Moore, 2006). 기질적 특성으로써 정서적 반응의 경험, 표현, 규제는 별개의 행위가 아니라 행동의 경향성으로 간주된다(Goldsmith, Buss, Plomin, Rothbart, Thomas, & Chess, 1987). 따라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기분, 두려움, 불안, 달래지는 정도, 새로운 상황에 끌리거나, 위축되는 양과 정도에서의 개인차는 여러 상황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영아의 특징으로 조사되어 왔다(Propper &

Moore, 2006). 영아기 정서성이 안정적인지 변하는 것인지에 관한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로 인해 최근에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정서성과 같은 기질적 특성이 강한 유전적 기초를 가지지만 환경의 중요성이 경시될 수 없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유아의 정서성에 관한 최근 연구는 정서성이 아동의 또래관계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유아의 정서성은 아동의 행동억제와 관련(권연희 · 박경자, 2003; 성미영, 2006; Eisenberg, Fabes, Bernzweig, Karbon, Poulin, & Hanish, 1993; Fabes, Eigenberg, Jones, Smith, Guthrie, Poulin, Shepard, & Friedman, 1999; Murphy & Eigenberg, 1997; Rothbart, Ahadi, & Hershey, 1994)을 보일 뿐만 아니라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친다(성미영, 2006; Ackerman, Izard, Schoff, Youngstrom, & Kogos, 1999; Eisenberg, Cumberland, Spinrad, Fabes, Shepard, Reiser, Murphy, Losoya, & Guthrie, 2001). 이처럼 정서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유아의 정서성 발달과 부모의 정서사회화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유아의 정서성은 기쁨, 행복감, 만족 등의 긍정적 정서성과 슬픔, 분노, 두려움 등의 부정적 정서성으로 구분되는데(Dougherty, 2006), 유아의 정서성에 관한 선행연구(권연희 · 이종희, 2005; 김선희, 2001; 성미영, 2006)에서는 부정적 정서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가 가정에서 보이는 정서표현성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 등 정서사회화가 유아기 자녀의 정서성 발달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긍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정

서성을 모두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부모의 정서사회화를 다룬 일부 선행연구의 경우에도 주로 어머니의 정서사회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권연희 · 이종희, 2005; 한유미 · 손경화, 2004), 아버지의 역할을 다루고 있더라도 아버지의 양육행동이나 양육참여가 아동의 정서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한정되어 있다(박혜경 · 박성연, 2002; 우수경, 2004; 최경순 · 정현희, 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아버지 역할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회 현실을 고려할 때 자녀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정서사회화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직접적으로 부모의 정서사회화와 아동의 정서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가정 내에서 부모가 보이는 정서표현성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어머니와 아버지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유아의 정서성과는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가정 내에서 보이는 부모의 정서표현성은 어머니와 아버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은 어머니와 아버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정서성은 유의한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4>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유아의 정서성은 유의한 관련이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만5세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유아기 자녀의 연령을 만 5세로 한정된 이유는 이 시기에 아동의 정서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부모가 언급되기(Denham, 1998) 때문이다.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및 유치원 4곳에 다니는 만 5세 유아의 부모에게 질문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머니 106명, 아버지 105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아동의 연령은 평균 5세 3개월(연령범위 54개월~68개월)로, 대부분의 아동(82명, 80.4%)이 한명 이상의 형제가 있었다. 가족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부모의 연령은 아버지가 평균 38.3세였고, 어머니가 35.5세였다.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61%(61명), 어머니의 53.9%(55명)가 대학 중퇴 이상이었다. 부모의 직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사무직이 26.5%(27명) 관리직이 24.5%(25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문기술직(15명, 14.7%), 판매 서비스직(14명, 13.7%)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가정주부가 51%(53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무직(16명, 15.4%), 전문기술직(15명, 13.3%)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월평균 수입은 51.3%(58가구)가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48.7%(55가구)가 400만원 이상이었다.

2. 연구도구

1) 부모의 정서표현성 측정

가족 맥락에서 부모가 보이는 자기 정서 표현성(self-expressiveness)을 측정하기 위해 Harberstadt

와 동료들(1995)이 개발한 Self-Expressiveness in the Family Questionnaire(SEFQ)를 한국의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해서 사용했다. 이 척도는 Harberstadt(1986)의 Family Expressiveness Questionnaire(FEQ)를 토대로 한 것으로 FEQ는 성인이 된 자녀가 원가족에서 경험했던 정서표현 사건의 전반적인 빈도에 대해 회고해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반면에, SEFQ는 성인이 현재의 가족 안에서 보이는 자기 정서 표현성의 개인적 수준을 보고하도록 구성되었으며, 긍정적 정서표현성(예, 가족이 뭔가 좋은 일을 하면 칭찬해준다)과 부정적 정서표현성(예, 다른 가족의 행동에 불만을 표현한다)의 두 가지 요인으로 나뉜다. 이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가족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정서표현 상황을 묘사한 40개의 가상적 시나리오로 구성된 SEFQ를 응답자가 자신이 평소에 집에서 그러한 정서표현을 어느 정도 보이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7점)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했다. 따라서 23문항으로 구성된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경우 23~161점의 점수범위를 보이며, 17문항으로 구성된 부정적 정서표현성의 경우 17~119점의 점수범위를 보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표현성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Cronbach's α 값은 .90이었고, 부정적 정서표현성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82였다.

2)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측정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Eisenberg, Fabes와 Bernzweig(1990)의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CCNES)을 기초로 한 김희정(1994)의 도구를 참조하여 질문지를 구성했다. CCNES는 부모에게 아동의 부정적 정서경험을 나타내는 가상의 시나리오와 함께 이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스트레스 반응’, ‘처벌적 반응’, ‘정서표현격려 반응’, ‘정서중심 반응’, ‘문제중심 반응’ 및 ‘최소화 반응’의 6가지 하위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한 후, 개별 하위유형에 속하는 반응이 평소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행동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물어보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6가지 반응 유형 가운데 ‘스트레스 반응’은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경험했을 때 부모가 느꼈던 불안이나 스트레스 정도를 반영하는 반응유형(예, 아이의 부주의함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다)이며, ‘처벌적 반응’은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부모가 벌을 주는 반응(예, 만약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아이가 좋아하는 일(예 : TV시청)을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다)을 말한다. ‘정서표현격려 반응’은 유아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모가 격려해주는 반응(예, 속상할 때는 울어도 괜찮다고 말해준다)이며, ‘최소화 반응’은 부모가 상황의 심각성을 최소화하거나 아동이 경험한 스트레스 반응의 가치를 낮추어 주는 반응(예, 곧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말해준다)을 말한다. ‘정서중심 반응’은 부모가 아동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위로해 주는 반응(예, 일단 아이를 달래고 아이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함께 재미있는 활동이나 놀이를 한다)이며, ‘문제중심 반응’은 아동이 스트레스에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격려하는 반응(예, 아이가 혼자 잠자리 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도록 도와준다)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총 12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각각 6가지의 반응유형이 제시되어 총 7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의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7점)의 순으로 평정되는 7점 리커트 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 반응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반응마다 12~84점의 점수범위를 보인다. 정서반응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반응의 Cronbach's α 값은 스트레스 반응이 .73, 처벌적 반응이 .80, 정서표현격려 반응이 .83, 정서중심 반응이 .83, 문제중심 반응이 .77, 최소화 반응이 .81이었다.

3) 유아의 정서성 측정

유아의 정서성을 측정하기 위해 Rothbart, Ahadi, & Hershey(1994)가 개발한 아동행동질문지(Child Behavior Questionnaires : CBQ)를 토대로 CBQ의 하위영역 중 정서성 관련 문항을 연구대상 연령과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보완한 성미영(2006)의 정서성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아동의 정서성 발달 영역은 크게 긍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성으로 구분되는데, 긍정적 정서성(예,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웃는다)은 기쁨의 정서상태를 의미하고, 부정적 정서성(예, 하던 일이 안 풀리면 실망한다)은 분노/좌절, 두려움, 슬픔의 정서상태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기쁨(예, 재미있는 이야기나 농담을 하면 크게 웃는다)은 긍정적 정서성에 해당하고, 슬픔(예, 하던 일이 잘 안 풀리면 몹시 실망한다), 두려움(예, 높은 곳을 무서워한다), 분노(예,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면 화를 낸다)는 부정적 정서성에 해당한다.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7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가진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 정서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6문항으로 구성된 긍정적 정서성의 경우 0~36점의 점수 범위를 보이며, 18문항으로 구성된 부정적 정서성은 0~108점의 점수 범위를 보인다. 아동의 정서성 검사는 아동의 어머니가 정서성 검사 질문지를 작성함으로써 측정되었다. 정서성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긍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성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각각 .71과 .76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5세아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정서사회화 및 유아의 정서성을 측정하는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2006년 6월 조사원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해 담임교사의 협조를 받아 총 137명 유아의 가정에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1주일이 지난 후에 조사원이 다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해서 회수된 질문지를 수거한 결과, 113명 유아의 가정에서 질문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부실 기재된 사례를 제외하고 총 211부(어머니용 106부, 아버지용 105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t -검증,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가 사용

되었다.

III. 결과 분석

1.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정내 정서표현성 비교

가정 내에서 보이는 부모의 정서표현성은 어머니와 아버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이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성 모두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점수는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점수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351, p<.001$).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점수($M=123.87, SD=16.26$)가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점수($M=111.80, SD=16.72$)보다 높아 어머니가 가정내에서 긍정적 정서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 점수도 아버지의 부정적 정서표현성 점수와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t=6.604, p<.001$),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 점수($M=65.33, SD=13.00$)가 아버지의 부정적 정서표현성 점수($M=54.75, SD=10.90$)보다 높아 어머니가 가정내에서 부정적 정서 표현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가정내에서 아버지보다 긍정적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을 모두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정내 정서표현성 비교

항 목	어머니 $M(SD)$	아버지 $M(SD)$	t
긍정적 정서표현성 ($n=92$)	123.87(16.26)	111.80(16.72)	5.351***
부정적 정서표현성 ($n=92$)	65.33(13.00)	54.75(10.90)	6.604***

*** $p<.001$

2.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응 비교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스트레스 반응과 표현격려 반응, 문제중심 반응에서만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 점수는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t=-3.914, p<.001$),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응 점수($M=35.44, SD=7.50$)가 아버지의 스트레스 반응 점수($M=38.17, SD=7.40$)보다 높아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아버지보다 스트레스 반응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현격려 반응 점수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t=9.691, p<.001$) 어머니의 표현격려 반응 점수($M=49.07,$

<표 2>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응 비교

항목	어머니 M(SD)	아버지 M(SD)	<i>t</i>
스트레스 (<i>n</i> =91)	35.44(7.50)	38.17(7.40)	-3.914***
치벌 (<i>n</i> =91)	34.96(9.12)	36.19(9.09)	-1.130
표현격려 (<i>n</i> =91)	49.07(9.81)	36.19(9.09)	9.691***
정서중심 (<i>n</i> =90)	61.83(8.48)	59.88(8.94)	1.663
문제중심 (<i>n</i> =91)	61.88(6.97)	59.31(7.98)	2.669**
최소화 (<i>n</i> =91)	57.03(9.35)	59.00(10.33)	-1.475

** $p<.01$ *** $p<.001$

$SD=9.81$)가 아버지의 표현격려 반응 점수($M=36.19, SD=9.09$)보다 높았다. 다시말해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부정적인 표현을 하도록 더 격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중심 반응 점수에서도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t=2.669, p<.01$) 어머니의 문제중심 반응 점수($M=61.88, SD=6.97$)가 아버지의 문제중심 반응 점수($M=59.31, SD=7.98$)보다 높았다. 즉,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부정적 정서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반응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정서성의 관계

가족 내에서 부모가 보이는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정서성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표현성은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r=.372, p<.01$)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표현성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r=.390, p<.01$)과만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어머니가 가정 내에서 긍정적 정서 표현성을 많이 보일수록 자녀의 긍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았고,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 표현성을 많이 보일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았다. 아버지의 정서 표현성에서는 부정적 정서 표현성만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r=.253, p<.05$)과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고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 표현성은 유아의 정서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가정 내에서 부정적 정서 표현성을 많이 보일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정서성의 상관관계

	긍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372**	.110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	.181	.390**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035	.128
아버지의 부정적 정서표현성	.036	.253*

* $p < .05$ ** $p < .01$

4.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유아의 정서성의 관계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정서 반응과 유아의 정서성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응과 처벌적 반응은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r = -.201, p < .05$; $r = -.203, p < .05$)과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스트레스를 보이거나 벌을 주는 방식으로 많이 반응할수록 자녀가 낮은 긍정적 정서성 수준을 보였다. 어머니의 문제중심 반응과 정서중심 반응은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r = .410, p < .01$; $r = .449, p < .01$)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문제중심 반응과 기분이 좋아지도록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정서중심 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자녀의 긍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응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r = .242, p < .05$)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고 처벌적 반응도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r = .226, p < .05$)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표현하거나 벌을 주는 반응을 많이 할수록 자녀의 부정

〈표 4〉 부모의 정서반응과 유아의 정서성의 상관관계

	반응	긍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	스트레스	-.201*	.242*
	처벌적	-.203*	.226*
	정서표현격려	.129	.111
	정서중심	.410**	.118
	문제중심	.449**	.177
	최소화	.149	.037
아버지	스트레스	.006	.125
	처벌적	-.057	.085
	정서표현격려	-.057	.085
	정서중심	.154	.077
	문제중심	.272**	.047
	최소화	.031	-.013

* $p < .05$ ** $p < .01$

적 정서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아버지의 정서반응에서는 문제중심 반응만이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r = .272, p < .01$)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아버지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문제중심 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자녀의 긍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며, 그 외에 아버지의 다른 반응은 자녀의 정서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 구분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아동의 사회 정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서사회화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서 사회화 양상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부모가 가장 중요한 사회화 담당자 역할을 하는 만 5세 유아의 정서성과 부모의 정서

사회화와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가정 내에서 보이는 부모의 정서표현성은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성 수준 모두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한다는 선행연구(송하나, 2006; Garner, Robertson, & Smith, 1997)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최근에 어머니가 주양육자로서 자녀양육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아버지의 양육태도, 양육참여도와 아동 발달과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정서표현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모두 더 많이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의 정서사회화가 이루어질 때 아동이 부모의 정서적 표현을 모방하면서 이루어진다(Halberstadt, Cassidy, Stifter, Parke, & Fox, 1995)는 사실에 비추어보았을 때 여전히 어머니의 정서사회화가 자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인 어머니 다수가 전업주부로서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고, 남성의 정서표현보다는 여성의 정서표현을 더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사회·문화적 영향에서 비롯된 것임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응에서는 스트레스 반응과 표현격려 반응, 문제중심 반응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반응을 더 많이 보였다. 또한 어머니는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표현격려 반응과 부정적 정서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

거나 대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문제중심 반응을 아버지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형의 일반적 경향이 부정적 반응 유형보다는 정서중심 반응이나 문제중심 반응을 더 많이 보인다는 선행연구(한유미·손경화, 2004)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만, 특히 아버지의 반응과 비교했을 때도 어머니가 그러한 반응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부정적 반응을 아버지보다 많이 보이는 이유로는 이 연구에서 다수가 전업주부인 어머니가 아이와 지내는 시간이 아버지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육아로 인한 부담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스트레스 반응을 더 많이 보인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정서사회화 역할을 비교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서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지지적 반응이 유아가 타인의 정서를 더 잘 이해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정서를 조절하게 하므로(Garner, Jones, & Miner, 1994),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정서반응 훈련 프로그램이 자녀의 정서적 유능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부모의 정서사회화가 기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정서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이 높았고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표현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도 높았다. 이것은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아동이 긍정적 정서인식을 더 잘하고, 어머니가 자신의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하고 부정적 정서표현을 적게 할수록 아동이 긍정적 정서를 더 잘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 정서

표현이 아동의 긍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Cassidy, Parke, Bulkovsky, & Braungart, 1992; Garner, Robertson, & Smith, 1997)를 지지하는 것으로, 부모가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것이 아동들로 하여금 긍정적 정서를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전략을 학습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혜련·최보가, 2002). 또한 아동이 부모가 가족 안에서 다른 가족구성원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모 자신의 정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관찰하면서 어떤 정서를 어느 정도 표현하는 것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파악한다고 볼 수 있다(Denham, Zoller, & Couchoud, 1994; 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한편 아버지는 부정적 정서표현성만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과 관련이 있어서 아버지가 가정 내에서 부정적 정서 표현성을 많이 보일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버지의 정서표현성이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는 달리 아동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이혜련·최보가, 2002)와는 다른 결과로 아버지의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자녀의 성별에 상관없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관련이 있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정서적으로 도전적인 상황(예 : 분노)을 제외하고는 정서관련 사건을 더 잘 회상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Garner, Robertson, & Smith, 1997), 질문지를 통한 자기 보고식 평가보다는 관찰을 통해 부모의 정서표현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정서 반응과 유아의 정서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스트레스 반응과 처벌적 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은 낮았고, 어머니가 문제중심 반응과 정

서중심 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스트레스 반응과 처벌적 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스트레스를 표현하거나 벌을 주는 부정적인 반응이 유아의 낮은 긍정적 정서성 수준, 높은 부정적 정서성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는 선행연구(권연희·이종희, 2005)와 유사하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 또래 수용 등 사회적 유능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정서중심 반응이나 문제중심 반응처럼 지지적인 반응은 유아의 정서 이해 능력이나 조절 능력 등 정서적 유능성에 도움을 준다는 선행연구(강희연·강문희, 1999; 권연희·이종희, 2005; Garner, Jones, & Miner, 1994)를 토대로 보았을 때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을 높이고 부정적 정서성을 낮추기 위해 부모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지지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가 일방적이기 보다는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송하나, 2006), 유아의 정서성이나 다른 기질적 측면이 부모의 특정한 반응을 더 이끌어내는 경향이 있는지를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아버지의 정서 반응은 문제중심 반응에서만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과 관련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자녀의 긍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았다. 아버지의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양육참여 시간이 짧고 자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 양상도 어머니와 달라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이 자녀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부모의 정서사회화와 그 자녀의 정

서성간에 관련이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 하면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보이는 반응과 정서표현성의 내용에 따라 유아가 보이는 정서성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결과는 부모의 정서사회화가 유아의 정서성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이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스트레스 반응이나 처벌적 반응은 아동의 부적절한 대처 행동과 관련되는 반면, 문제 중심 및 정서 중심 반응과 정서 표현 격려는 아동의 인기도 및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Eisenberg, Fabes, Carlo, & Karbon, 1992)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모의 정서사회화가 아동의 정서적 유능성,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미치는 중요성을 반영한다. 부모가 가족 내에서 정서적으로 긴장된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가는 아동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며 규제하는 방법을 학습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와 상호작용할 때 높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고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게 한다. 반면에 다른 부모들은 대체로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고 아동이 가족 내에서 다양한 정서를 표현하도록 장려한다(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부모의 긍정적인 정서 표현이 더 높은 또래 지위와 관련이 있으며 부모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표현은 반대로 또래 수용도와 친사회적 행동에서 부적 관련이 있다(Boyum & Parke, 1995; Cassidy, Parke, Bulkovsky, & Braungart, 1992)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아버지의 정서사회화 역할을 규명하고자 시도했는데, 아버지의 양육자로서의 중요성이 주목을 받고 양육에 참여하는 비중이 늘어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유아기 자녀에 대한 정서

사회화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어머니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 연구는 연구대상의 수가 적다는 점과 부모의 정서사회화 및 유아의 정서성에 대해 부모의 자기보고식 질문지에만 의존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또한 비교적 포괄적인 개념인 부모의 정서사회화 중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한정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상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희연·강문희(1999).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유형, 유아의 대처반응 및 또래수용간의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20(3), 171-182.
- 권연희·박경자(2003).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성,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 **아동학회지**, 24(3), 27-44.
- 권연희·이종희(2005).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아동의 정서성 및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201-216.
- 김선희(2001).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우울성향 및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67-76.
- 김희정(1994). 어머니가 지각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동의 대처반응.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혜경·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8), 87-98.
- 성미영(2006).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따른 사회적 기술과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7(3), 285-300.
- 성미영(2006). 시설보호 여부에 따른 아동의 정서성 발달과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한국생활과**

- 학회지, 15(1), 17-29.
- 송하나(2006). 가족의 인구학적 변인과 아동의 정서적 반응이 부모의 정서 표현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 가정학회지**, 44(1), 75-85.
- 신양재(2004). 조선시대 아동교육용 문헌에 나타난 정서과정에 대한 규범적 기대(1). **대한가정학회지**, 42(8), 147-167.
- 우수경(2004). 가정환경이 유아의 정서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4(4), 75-94.
- 이혜련·최보가(2002). 학령전 아동의 정서이해와 부모의 정서표현성 및 아동정서 수용태도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0), 103-112.
- 최경순·정현희(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역할수용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 가정학회지**, 33(1), 125-139.
- 한유미·손경화(2004).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 197-206.
- Ackerman, B. P., Izard, C. E., Schoff, K., Youngstrom, E. A., & Kogos, J. (1999). Contextual risk, caregiver emotionality and the problem behaviors of six-and seven-year-old children from economically disadvantaged families. *Child Development*, 70(6), 1415-1427.
- Boyum, L. A., & Parke, R. D. (1995). The Role of Family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Marriage & Family*, 57(3), 593-608.
- Cassidy, J., Parke, R. D., Butkovsky, L., & Braungart, J. M. (1992). Family-peer connection : The rol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 603-618.
- Denham, S. A. (1998).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NY : The Guilford Press.
- Denham, S. A., Zoller, D., & Couchoud, E.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 928-936.
- Dougherty, L. R. (2006). Children's emotionality and social status : A meta-analytic review, *Social Development*, 15(3), 394-417.
- Dunn, J., Brown, J., & Bear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48-455.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Eisenberg, N., Cumberland, A., Spinrad, T. L., Fabes, R. A., Shepard, S., Reiser, M., Murphy, B. C., Losoya, S. H., & Guthrie, I. K. (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2(4), 1112-1134.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 138-156.
- Eisenberg, N., Fabes, R. A., Bernzwei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 (1993).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4, 1418-1438.
- Eisenberg, N., Fabes, R. A., Carlo, G., & Karbon, M. (1992). Emotional responsivity to others : Behavioral correlates and socialization antecedents. In N. Eisenberg, & R. A. Fabes(eds.), *Emotion and its regulation in early development : New directions in child development*(pp.57-74). San Francisco : Jossey-Bass.
- Fabes, R. A., Eisenberg, N., Jones, S., Smith, M., Guthrie, I. K., Poulin, R., Shepard, S., & Friedman, J. (1999). Regulation, emotionality,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t peer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70(2), 432-442.
- Garner, P. W., Jones, D. C., & Miner, J. L. (1994). Social competence among low-income preschoolers : Emotion socialization practices and social cognitive

-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65, 622-637.
- Garner, P. W., Robertson, S., & Smith, G. (1997). Preschool children's emotional expression with peers : the roles of gender and emotion socialization. *Sex Roles*, 36(11/12), 675-691.
- Goldsmith, H., Buss, A. H., Plomin, R., Rothbart, M. K., Thomas, A., & Chess, S. (1987). What is temperament? Four approaches. *Child Development*, 58, 505-529.
- Goldsmith, H., & Campos, J. (1982) Toward a theory of infant temperament. In R. N. Emde, & R. J. Harmon(eds.), *The development of attachment and affiliative systems*, NY : Plenum Press.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243-268.
- Halberstadt, A. G. (1986). Family socialization of emotional expression and nonverbal communication styles and skil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4), 827-836.
- Halberstadt, A. G., Cassidy, J., Stifter, C. A., Parke, R. D., & Fox, N. A.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1), 93-103.
- Masters, J. C., & Carlson, C. R. (1990). Children's and adult's understanding of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emotional states. In C. Izard, J. Kagan, & R. Zajonc(eds.), *Emotions, cognition, and behavior*.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rphy, B. C., & Eisenberg, N. (1997). Young children's emotionality, regulation and social functioning and their responses when they are targets of a peer's anger. *Social Development*, 6(1), 18-36.
- Nixon, C. L., & Watson, A. C. (2001). Family experiences and early emotion understanding. *Merrill-Palmer Quarterly*, 47(2), 300-322.
- Propper, C., & Moore, G. A. (2006). The influence of parenting on infant emotionality : A multi-level psychobiological perspective. *Developmental Review*, 26, 427-460.
- Rothbart, M. K., Ahadi, S. A., & Hershey, K. L. (1994). Temperament and social behavior in childhood. *Merrill-Palmer Quarterly*, 40, 21-39.
- Saarni, C. (1990). Emotional competence : How emotions and relationships become integrated. In R. Thompson(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 Vol.36. Socioemotional Development*(pp. 115-182).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07년 2월 28일 투고 : 2007년 5월 21일 채택